

저는 우선, 담배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의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는 담배를 정말 많이 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아빠 방이 연기로 뒤덮히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빠가 담배를 자신의 방에서 필때는 함께 있는 엄마만의 괴로움으로 문제는 끝납니다. 그러나, 아빠가 방에서 나와 거실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저와 여동생은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숨쉬기가 힘들어요.’ 특히 코가 안좋은 저로서는 담배연기를 맡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빠도 물론 담배를 끊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아빠가 담배 피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담배를 피는 것은 자신 이외에 타인에게도 폐를 끼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아빠의 경우는 아빠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수 있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하는 밀폐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담배는 피는 사람에게만 그 피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지 않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괴로워 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회사나 레스토랑, 버스나, 전차 등과 같은 공중장소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하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담배회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담배를 공중장소에서 금지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